■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2〉

豪傑絶望
호 걸 절 망

호걸들이 절망하였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면 지난 시절 겪었던 어려움은 오히려 추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그 간난(艱難)시절을 노래할 수 있다. 반대로 희망의 싹이 텄지만 이를 키워야할 사람이 오히려 싹을 자르려 든다면 어떨까?

남송 고종시절로 돌아가 보자. 북송의 마지막 황제인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그리고 비빈과 종실들 가운데 도읍인 개봉(開封)에 있던 사람이라면 남김없이 여진족의 금(金)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에 운 좋게도 아버지 휘종의 심부름으로 개봉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휘종의 아들로는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조구(趙構)였다. 그는 유일하게 금(金) 잡혀가지 않은 휘종의 핏줄이어서 송의 황제에 올랐다. 남송의 고종(高宗)이다.

고종은 비록 황제에 오르긴 했어도 피난생활을 해야 할 처지였다. 당시에 송의 군대는 금군(金軍)이 온다는 풍문만 듣고도 도망쳤다. 그뿐인가? 전쟁으로 살기 어려워지자 산림(山林)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어서 표략하고 있던 혼란한 시절이다. 그 위에 어쩌다 만들어진 군대는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남송(南宋)도 차츰 안정되어가고 금(金) 왕조의 내부 상황도 바뀌었다. 남송에는 금(金)과 대결할 정도의 장군도 나타났고 금에서는 더 이상 송과 전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제 역사흐름의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金)에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하북지역을 송(宋)에 돌려주자는 화의(和議)하자는 주장이 나타났고 또 실제로 송에 하북지역을 돌려준다고 통보까지 하였다. 이리 된 것은 그동안 연전연승한 것에 도취하여 군사들이 교만해져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과 송에서도 금(金)에 저항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하나 둘 나타나서 개전(開戰) 초기와는 송금 군사력이 많이 달라져 있었던 연고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 속에도 10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변화할 줄 모르는 세력들은 이러한 화의(和議)에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화의론자들을 척살(刺殺)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돌려주었던 하북지역으로 다시 진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완안종필이었다. 아직도 개전초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 보수성이 다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송의 군대도 전과 달랐다. 전 같으면 완완종필이 온다는 이름만 들어도 송군(宋軍)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하북지역에서 완안종필이 보낸 군대를 패배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확실히 송에서도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이때 완안종필의 금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송의 장군 가운데 악비(岳飛)가 유명하였다. 악비는 몇 번 금군과 접전하고서 이미 금군(金軍)이 10년 전의 금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반면 몇 번의 전투를 통하여 송군에게 패배했지만 과거에 연승하던 생각을 떨치지 못한 완안종필은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다. 그래서 온 병력을 다 모아서 송군과 대결하려 하였다. 신흥(新興)의 악비세력과 수구(守舊) 완안종필 세력의 한판 승부가 있어야 했다.

드디어 금군(金軍)과 송군이 부딪쳤다. 금군은 과거에 송군을 겁먹게 하였던 완안종필은 괴자마(拐子馬) 1만 5천을 가지고 왔다. 괴자마라면 완안종필이 거느린 기병 가운데 정예였는데병사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서 웬만한 공격을 막으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마(騎馬) 세필을 소가죽 끈으로 연결시켜서 1조(組)를 만들어 이들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여 세 사람을 연결시켜서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도록 만들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러나 세일이 이미 10여년이 흘러서 송군도 이를 대처할 무기가 개발 되었던 것이다. 마찰도(麻札刀)라는 것인데 원래는 마(麻)를 베기 위하여 개발 된 긴 낫이지만 이것을 조금 개량하여 날카로운 칼을 긴 자루에 묶어서 기마(騎馬)의 발을 공격하도록 만든 것이다. 악비는 보졸(步卒)들에게 마찰도(麻札刀)를 가지고 금(金)의 진지(陣地)로 들어가게 하면서 위를 올려다보지 말고 다만 말의 발만을 베게 하였다. 괴자마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마리의 말이 엎어지면 나머지 두 말은 갈 수가 없었다.

과거와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띤 전투가 되었다. 새로운 양상에 힘을 입은 악비의 군사는 분발하였고 반대로 금군(金軍)은 혼란에 빠졌고 드디어 송군이 그 명성 높은 완안종필의 대군을 격파한 것이다. 신구전술의 대결에서 금이 진 것이다. 완안종필은 크게 통곡하면서 말하였다. "해상(海上)에서 기병(起兵)하면서부터 모두 이 말을 가지고 승리하였는데 지금 끝났구나 ! " 신흥세력의 승리이고 수구(守舊) 수장의 통곡이었다.

그런데 송에도 여전히 수구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개전(開戰) 초기부터 금(金)과 화의(和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진회(秦檜)가 재상이 되어 있었다. 그가 전황의 변화를 보면서 재빨리 정책변화를 해야 했지만 10년 전과 다름없이 주화론(主和論)을 지키고 있었다. 오히려 남송이 금을 이기면 남송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는 이기고 있는 남송군의 회군(回軍)을 명령하였다. 남송에서 수구세력이 모처럼만에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있었다.

진회는 악비가 바로 명령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 회군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가진 사자가 하루에도 12번이나 보냈다.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했던 일선지휘관인 악비는 10년간 세운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통곡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악비군에게 양초(糧草)를 몰래 지원하였던 중원(中原)지역에 있던 호걸들은 절망(絶望)하였다.

평화를 무너트리고 금군(金軍)을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고 간 금의 수구세력 완안종필이나 모처럼 찾아 온 승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송의 수구세력 진회가 만들어낸 뒤틀린 역사였다. 세월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금이나 송이나 모두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다.

세상이 변했는데 10년 전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어디 진회나 완안종한 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도 마찬가지로 변할 줄 모른다. 얼마 전 김포에서 택배회사 사장이 노조의 등쌀에 자살한 일이 있다. 30년 전에 노동자는 약자로 치부되었는데 지금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30년 전 약자 코스푸레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약자를 도우려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코스푸레를 보고 그들에게 절망하는 일이 없을까?

안동권씨 능우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안동권씨 능우회(陵優會: 회장 권기현) 주최 운영위원회 회의가 11월 21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태화동 강변마을2길에 위치하고 있는 "촌가 칼국수전문식당"에서 개최하였다. 권영준 안동대 교수 등 역대 능우회장을 역임했던 회장 5명과 권오갑 사무국장 등 모두 8명이 모였으며 현 회장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내년도 능우회장을 맡을 권오익씨(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가 임시 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오갑 사무국장은 그동안 능우회에서 일어났던 각종 업무를 보고했으며 회비 미납회원들에게는 완납을 독려키로 하고 아울러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13일 개최키로 했으며 장소는 추후 회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월 31일 열린 안동종친회 임시총회 때 회칙개정에서 능곡회가 안동종친회 소속으로 된 것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권오성 능곡회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능우회원은 33명이 있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수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2022 재안파종회장친목회 11월 월례회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기호) 제17차(次) 회의가 11월 25일 오후 5시 안동시 안기천로18(태화동) 안동종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전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권기호 현 회장,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 겸 대종회 수석부회장, 권주연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세목 복야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오춘 부정공파종회장, 권인탑. 권영택 전 정조공파종회장 2명,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등 11명이다.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순협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4명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권오익 대종회 사무국장의 임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기호 친목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만나니 반갑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당부했다.

권오익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10일 시조 묘소 및 낭중공 단소 추향제 때 전국에서 참여한 참제원은 320여 명이며 들어온 성금도 1천1백50여만 원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11월 25일 동정공파종회(회장 권오수)는 안동시 신안동 범석골 파조 단소에서 파(派) 족보를 발행함에 앞서 고유제를 봉행했는데 이 자리에 권오훈(대종회 문헌편찬위원장), 권주연(부호장공파종회장), 권혁철(동정공파 부회장), 권오익(사무국장)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표준영정 제작 추진에 대해 안동시와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홀수 달에 모이는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70대에 회상하는 가족사…

권선홍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가족사란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못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내겐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또 한국현대사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이 들어가면서 몇몇 가까운 사람과는 술 한잔 들며 부분적인 얘기를 나누기는 했으나, 대강을 글로 옮기는 것은 처음이다. 염치가 줄어듦을 세월 탓으로 돌리며..

휴전되기 전에 태어난 세대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나 역시 가난이란 굴레 속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 고향 일가 중 부자집 일을 거들어주며 생계를 꾸려나가셨다고 한다. 24년 갑자생이신 아버지는 '어딜 가든 집보다 못하랴' 하는 마음으로 19살에 동네 아저씨 한분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셨다. 일본 건너갔다 하면 누구나 징용을 떠올리겠지만, 오늘날의 해외근로자 같은 '산업전사'란 것이었다. 대학 은사께서 '당시로서는 아주 잘된 일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햇수로 3년간 고생하시며 첫해는 돈을 못 보냈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해에는 보냈다고 하셨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증조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가족이 먹고사는 데 쓰고, 남은 돈으로 6백여 평 논과 조그만 텃밭 그리고 사랑채를 사고 지으셨다.

나 역시 모든 게 불편하였지만, 그때는 대부분 가난했기에 사는 게 다 그려러니 하며 살았다. 국민학교 3학년까지 1년 선배 책을 물려받아 공부했고, 학교 다니며 군것질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다. 아무튼 세월이 흐른 뒤에 찾아뵌 외숙부께서 "네 어머니가 너희 집안으로 시집가실 분이 아닌데"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내겐 가난보다도 정말로 더 힘들고 절망적인 또다른 굴레가 있었다. 바로 연좌제라는 굴레였다. 아버지 형제 중에, 백부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셨고 둘째인 아버지 밑으로 고모 두분, 숙부 세분 모두 7남매셨다. 내 백부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부친이 처형당한 인텔리 형과 함께 고향쪽 좌익 활동을 주도하며 여러 친척들을 참여시키셨다. 결국 참여했던 분들 거의 다 수원 팔달산에서 처형당하였다. 서로 죽이고 죽던 시절..

당시 첫째 숙부는 국민학교 졸업후 혈혈단신으로 상경하여 낮에는 행상을 하며 남대문중학 야간을 다녔는데, 백부의 비극을 접하고는 '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북으로 넘어가셨다.

59년 남파되었지만 결국 체포되어 기나긴 영어생활을 하였다. 햇수로 장장 24년..

국민학교 입학했던 60년 2,3월 아니었나 싶은데, 인천교도소에 면회 가시는 할머니와 작은고모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어린 아이라서 면회는 못하고 홀로 수위실에서 기다렸다. 별다른 기억은 없지만, 담벼락이 매우 높고 길다는 것과 수위 아저씨가 난로불 쬐라며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이 남아 있다.

둘째와 셋째 숙부 결혼 때마다 숙모 댁에서 '왜 그런 집안과 혼사하게 했느냐'며 중신한 사람에게 몹시 원망을 한다는 얘기들이 어린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 이런 주홍글씨를 피할 재간이 이 세상에는 없겠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

아무튼 백부와 숙부 일에 대해서는 집안 어느 누구도 먼저 얘길 꺼내거나 물어볼 엄두도 못내는 그야말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첫째 숙부에 대한 소환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국민학교 5학년이 되고 얼마쯤 지나니, 전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였다. 김복자 선생님은 내 점수를 보시고 '수재네'라며 칭찬해주셨다.

시험이 끝나고 한달쯤 지났을까, 담임 박영희 선생님과 이양성 선생님 그리고 젊은 최구용 선생님 세분이 가정방문차 집에 오셨다. '경기도 시행 학력검사에서 내가 1등을 하였다'며 축하를 해주시려고.. 당시 인천도 경기도에 속했다. 같은 면 출신에 제일 연장자이신 이 선생님께서 "'스농'(고향 어른들 발음)이가 왜 공부를 잘 하나 했더니 원덕이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원덕은 첫째 숙부 이름(족보명 진규).. 공부 잘 하셨다는 숙부의 소환이 바로 그때였다. 시대를 잘 만나고 여건만 좋았다면 명석하신 아버지나 고모 숙부 모두 큰 일들 하셨을 터..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랴마는..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김성동은 연좌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문학을 파고들었다고 한다.

나 역시 원천적으로 고시는 물론이고 공무원이나 번듯한 직장은 어느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정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절이었다.

76년 10회 외시 2차에 30명이 합격했는데, 3차에서 유일하게 1명이 불합격되었다. 대학시절 데모를 주동했다는데, 데모 관련자료는 경찰에서 보관하여 바로 제공했기에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되었다고 들었다. 나 역시 불합격되리라 예상했었다. 후일 알았지만, 신원조회는 한달 이상 걸리는 바람에 외무사무관 시보로 근무하는 중에 정식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들었다. 박종기 여권심사관이 외무부가 있는 중앙청에 들렀다가 동기인 총무과장을 만났는데, 여권과 권아무개 얘기를 하기에 '이런 사람을 불합격시키면 반정부 인물이 된다'며 임용을 적극 종용하였다고 내 입대환송 저녁 자리에서 알려주셨다. 결국 나 때문에 동기들 모두 한달 이상 임용이 늦어졌으니 미안할 따름이다. 아무튼 불가사의하게 임용은 되었지만, 난 '비밀취급인가증(비취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

집안문제로 직접 불이익 받은 걸 굳이 들자면, 제3사관학교 교관시험에 불합격한 일.. 78년 2월 초에 1박 2일로 영천 3사에서 시험을 보았다. 마지막이 면접시험이었는데, 최종 면접자가 준장인 교수처장이었다. 나를 보고는, 논문과 영어 성적도 좋고 전공 성적도 좋다는 말을 해주었다. 마치 합격을 보장하는 말로 들렸기에, 일말의 기대를 하였다. 현직 외무사무관이니 어쩌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불합격이었다.

과장께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됐겠지요' 하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라는 대답을 해주셨다. 그 무렵 서울대 조교로 있는 대학동기와 통화를 했는데 '야, 정치학은 3등이 됐다더라'고 알려주었다. 아마도 집안문제 아니었다면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다.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하다가 안 되니 기분도 그렇고,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사라졌다. 그해 3월 31일 인천에서 집결 입대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된 게 5월 하순쯤으로 기억된다. 육군본부였는데 전혀 생각치 못한 곳이다. 이 역시 뒷날 알게 됐는데, 육본 부관감실 총무과에 군인들 여권담당 부서가 있었고 담당 사병이 외무부 여권과에 정례적으로 드나들었다. 오래 드나들다 보니 익숙해진 담당자에게 언제 제대한다는 말을 하더란다. 관용여권실장으로 있는 동기가 그 말을 듣고는, 아, 여권과 아무개가 곧 입대예정이란 말을 건넸고 날 그 후임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게 발단이었다. 여권과 근무했던 여권 담당 사병! 그런데 정작 배치 받은 부서는 부관감실 당번병.. 내 사수 윤병장은 일주일 전에 제대하여 아무 인수인계도 없이 일을 시작하였다. 부관감 고향이 영남이라 보좌관부터 여군 운전병 등등 모두 영남 출신인데, 나만 경기도였다. 2주쯤 지났을까, 여권담당 장교가 결재 받으러 사무실에 왔다가 나를 보더니 '범인이 여기 있네'라고 했다. 그해 현충일 행사에 육본 사병들이 동원되어 나도 참석했다.

〈다음호에 계속〉